



##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함

### 그 덕을 사귀다

우리 민속의 정초(正月初)에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菴)의 일화이다. 『해동속소학』에 실려 있다.

이지함은 평소 간소한 옷에 짚신을 신고 노끈으로 만든 갓인 승립(繩笠)을 쓰고 다녔다. 언젠가 남명(南冥) 조식(曹植)을 찾아가 그가 생활하는 방을 보니, 붉은빛 푸른빛으로 아담하게 꾸며 놓고 책상은 화려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조식은 그 앞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지함이 그것을 보고 “선생은 어찌 이렇게 사치를 하시오?”라고 하니, 조식이 말하기를 “선비는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을 기르는 것을 으뜸으로 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뿐이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였고, 이지함은 거기서 이틀 밤을 자고 헤어

졌다.

그 뒤 그는 옥계 玉溪 노진 盧禎을 찾아갔다.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주인을 찾더니 말하기를 “어느 마을에 사는 아무개가 곡식을 빌려갔는데, 지금 그 이자를 독촉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지함은 노여운 기색으로 말하기를 “쌀의 되질을 잘하는 사람은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라고 말하고는, 곧장 일어나 신을 신고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토정 이지함이 조식과 손을 맞잡고 그의 집에서 이를 묵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진의 집에서는 곧장 나와 버렸는데,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다. 친구에게 권세가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신분이 귀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덕이 있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까 덕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다.

일찍이 맹자는 “친구는 나이가 많은 것, 신분이 귀한 것, 또 좋은 형제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사귀는 것이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 덕을 사귀는 것이지 달리 믿는 구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귀면 아무래도 얻을 게 있고, 친구에게 좋은 형제가 있으면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 맹자는 그런 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앞의 이야기에서 이지함은 곡식을 빌려주고 하인을 시켜 그 이자를 독촉하는 일

은 덕 있는 선비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 그가 그런 친구를 사귀다는 게 민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도 “천자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친구를 사귀어 덕을 이루지 않음이 없으니, 증자(曾子) (공자 제자)가 ‘친구로서 인(仁)을 돕는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여,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마음의 덕인 인을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덕을 도와 보충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덕을 보충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유익한 친구, 해로운 친구**

성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자주 회자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다운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래서 같은 고향 출신이나 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생활에서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다는 것은 고향이나 학교의 경우처럼 사귀기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대개 어떤 의도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은 자주 볼 수 있다. 종교 모임, 각종 특수대학원 원우회, 동호회, 같은 지방 출신의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런 모임 자체를 탓할 일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끼리 서로 돕

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다만 경제·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친분을 쌓으려고 사귀는 것은 또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혹 이들 가운데 누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잘못 사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득을 노리면서 친구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친구 없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다. 하다못해 배우자는 없어도 친구는 있는 법이다. 하지만 친구가 있다고 다 유익한 친구는 아니다. 필자가 한 때 자주 시청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모 방송사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산이나 외딴 섬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렇게 살아가는 연유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건강 문제와 가정불화와 사업 실패 등이 그것이다. 물론 자연에 사는 일이 꿈이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까닭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령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 나고 또 건강마저 잃은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사업 실패의 원인만 보면,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사업체가 잘 나가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한 경우도 꽤 많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렵고 화가 나서 산으로 와서 행복을 찾았단다. 그러니 이 경우는 해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보면 되겠다.

앞의 맹자의 말처럼 그 친구의 덕을 사귀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테지만, 친구의 덕을 알아보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을 아니겠다. 물론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세 가지 유익한 친구와 세 가지 해로운 친구의 유형만 알았어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지만 지난 일이라 소용없고, 다만 누구나 앞으로 친구를 사귀는 데 경계로 삼았으면 한다. 공자의 말은 이렇다.

친구를 사귀에 있어 유익한 친구가 셋이요, 해로운 친구가 셋이다. 정직한 친구, 진실한 친구, 들은 것이 많은 친구가 유익하다. 겉모습은 그럴 듯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친구, 나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친구, 말은 청산유수 같이 잘 하지만 듣고 본 경험이 없는 친구가 해롭다.

여기서 유익한 친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재산이 많은가? 외모가 아름다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 아니다. 그것들은 유익한 친구의 기준이 못된다. 정직·진실·지혜 등이 아닐까? 달리 말하면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나이가 좀 든 사람이라면 누가 사귀자고 접근하면 일단 경계한다. 산전수전과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삶의 경험에서 나름의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가 유명 인사도 아닌데 까닭 없이 내게 반가운 얼굴과 친근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 또는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내게 무엇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예외는 없다. 이처럼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하여 덕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덕을 사모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끼리 사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다만 요즘 세상에 영향력이나 경제적 능력 없이 덕만 많이 쌓았다고 해서 사귀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드물 뿐이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되 그 덕을 사귄다는 말은 식상한 말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적어도 그런 친구는 내가 이용당해 손해 볼 일은 없다. 거기다가 바른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내 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옛날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친구를 사귄 때는 너보다 나은 사람을 골라라.”라는 것도 아마도 덕이 있는 좋은 친구, 바른 사람을 사귀라는 뜻이리라. 예전에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때 『사자소학(四字小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필자도 언젠가 모 대학에서 전통 예절을 강의할 때 교재로 사용한 적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친구가 없을 수 없으니  
 글로써 친구를 모으고 친구로서 인(仁)을 돕는다.  
 바른 사람을 사귀면 나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되고  
 사특한 사람을 따라 놀면 나 또한 저절로 사특하게 된다.  
 썩이 삼(대마) 가운데서 자라면 불들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물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더럽게 된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 주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이는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처럼 친구의 영향으로 좋게도 나쁘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결국 덕이 있는 바른 사람을 사귀라는 교훈이다. 그래야 나의 덕을 채울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좇아 사람마다 덕이 있는 사람만을 친구로 삼는다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친구가 바른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하기는 자기의 덕이 쌓이기 전에는 참으로 어렵다. 대체로 자기 기준에서 바른 사람을 판단하므로 그 수준에 맞는 친구는 있게 마련이다. 저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좋은 친구도 공부하여 덕을 쌓아야 알아볼 수 있다.

### **버림받은 친구**

문제는 친구가 바른지 그렇지 못한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물론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면서 접근한다고 하자. 그는 일단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몰상식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만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나의 마음을 얻고자 접근할 때, 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 사람의 됴됨이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울곡 선생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부터 그 방법을 찾고 있다. 옛날 신하들 가운데도 임금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애쓰는 간신들도 섞여 있

었다. 그런데 간신이라고 얼굴에 써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것인가? 선생은 임금이 신하의 간언諫言을 잘 들으라는 했는데, 임금이 싫어해도 간언을 제대로 하는 신하가 어찌면 올바른 신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선조가 임금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그 간언을 친구 사이의 충고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다. 앞서 소개한 『사자소학』에서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진다.

친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선으로 인도하라.  
자기를 꾸짖어 주는 친구가 없으면 옳지 못한 데 빠지기 쉽다.  
내 앞에서 나의 잘한 점을 칭찬하면 아첨하는 사람이요,  
내 앞에서 나의 잘못을 꾸짖으면 강직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에 믿음이 없으면 정직한 친구가 아니다.

여기서 ‘나’를 임금으로 바꾸어도 임금이 좋은 신하를 알아보는 방법이 된다. 특히 내가 영향력이 있거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올 경우에도 해당된다. 설령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일부러 실수했을 때 그가 내게 충고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만 했다면 바른 친구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물론 칭찬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친구로부터 내가 이득이나 그 무엇을 바라면서 아첨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 잘 한 것을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첨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

각이다. 더구나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의 칭찬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충고하는 일은 『논어』에도 보이는데, 제자가 공자에게 친구 사귀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였다.

충고하여 잘 인도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만 두어서 스스로 욕먹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친구에게 충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 그것을 자주 하게 되면, 되레 친구와 멀어져 치욕을 당한다는 뜻이다. 그런 자와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해당되는 친구는 버림받는 꼴이 된다.

한 때 친구였지만 신뢰가 깨어지면 그를 버리는 일이 어찌면 자연스런 일인지 모르겠다. 또 젊을 때 총명하여 사리가 분명했던 친구도 나이가 들면서 고집과 주장만 강해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강요하면 무척 불편하다. 게다가 자기가 따르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다면 몹시 불쾌하다. 그런 태도를 고치라고 암시도 주고, 또 충고도 해 봐도 소용이 없다면, 자연히 버리게 된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 해 보았자 덕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변에 그런 친구가 생각 외로 참 많다는 게 문제다. 아직 젊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그 때 당신만은 버림받는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한 때 친구가 많았어도 정리되는 게 자연스런 일이다. 그

친구라는 게 덕을 위해 사귄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났거나 동창생처럼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난 경우도 그 대상일 것이다. 뜻도 맞지 않고 덕의 보충에 도움이 안 된다면 만날 이유도 사라지는 법이다. 게다가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에 차이가 있어서, 이제 와서 그 다른 것에 서로 동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편하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유유상종하게 된다.

이렇듯 나이가 들면 버림받은 친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혹 필자나 당신 또한 그런 버림받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유행가 가사처럼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괴롭고 아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괴로운 일만은 아니다. 축하받을 일일 수도 있다. 소인에게 버림받는 군자를 상상해보라! 당신이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다면 하찮은 소인배에게 버림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혹은 한두 명이라도 덕을 쌓은 친구라도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그마저 없다면 “덕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공자의 이 말을 위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실 덕을 쌓아두면 이웃이 없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그런 사람은 내공이 큰 분이다.

이처럼 율곡 선생이 소개한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은 나의 덕을 보충하는 일이다. 내가 덕을 보충하는 일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 그래서 덕을 쌓을수록 좋은 일이니, 결코 남에게 양보할 일도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웃이나 친구가 없을 수 있겠는가?